

## IV. 經濟 關聯 社說 抄錄

## □ 개선 안된 對日 경제의존

무역적자 누적으로 상징되는 대일 경제의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재 국산화 전략의 지속과 함께 국산개발 자본재에 대한 불신 극복이 필요

## ○ 대일 경제의존의 심화

- 대일 경제의존이 우리경제의 불치병으로 고착될 우려
- 수교이후 대일 누적 무역적자액 1,300억 달러 초과
- 특히 수출 1,000억 달러에 진입한 95년 이후 대일 적자는 150억 달러를 넘고 있음
- 자본재와 부품의 국산화 전략
- 대일 적자의 대부분은 중간재인 자본재와 부품의 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임
- 정부지원과 함께 수요자인 기업들의 국산 개발 자본재에 대한 불신 극복이 과제

(「매일경제」, 97. 8. 16)

## □ 稅法 개정 的 방향

이번 세법개정의 핵심인 재무구조 지원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이용시 증자소득에 대한 공제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

## ○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보다 가시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

- 정부가 발표한 개정 세법은 경기부진에의 대응과 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조세감면에 역점을 둠
-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조치
-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보완 조치가 필요
-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제한은 지금처럼 기업의 재무상황이 최악인 여건에서는 시기상조임
- 대신 자기자본 이용에 대한 증자소득 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(「매일경제」, 97. 8. 26)

□ 기업자율의 구조조정

현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제대로 마무리되려면 재무구조 개선, 계열기업 정리 등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임

- 우리경제 이미 구조조정 단계에 진입
  - 국내 50대 그룹 중 42개 그룹이 이미 구조조정을 추진하거나 추진 계획 중임을 발표
  - 성장의 엔진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은 우리경제의 앞날을 밝게 하는 청신호로 해석됨
  -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임
  - 엔고나 해외특수 때문에 유야무야된 과거의 경험을 살려야 할 것임
  - 기업들은 이번이야말로 체질 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삼고 재무구조 개선, 계열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
  - 정부도 기업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

(「매일경제」, 97. 8. 29)

□ 걱정스런 외환보유고 감소

지난 8월 외환보유고의 감소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신중한 관리가 요망되며, 특히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의 악화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함

- 증가세의 외환보유고, 8월 큰폭 감소세로 반전
  -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위기 예방책 필요
  - 8월 외환보유고는 IMF가 제시한 적정 수준인 36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부족함
  - 환율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달러 매각, 태국에 5억 달러 지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외환보유고가 조기에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
  - 단기적으로 더 이상의 악화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함
  - 핫머니의 대거 이탈로 야기될지도 모를 혼란에 대비
  - 외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아사태의 조속 해결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

(「한국경제」, 97. 9. 8)